滿場聽衆을 音樂의殿堂으로
이날『그랜드컨써ー트』의 데일부는엄숙히마치엇다

연악회(硏樂會)주최와 본사후원의『그랜드컨써ー트』는 예뎡과 거리십일일오후일곱시반뎡각에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리엇는데 원래음악이란 고상한예술을 위한『그랜드컨써ー트』임으로장내의 복잡을 피하며 또는청아하게하기위하야 입장인원을 오백명에 한햇슴으로 뎡각전 누러 뎡원의좌석은 가득하야젓스며 또는 엄숙하야 근래음악회도서는 처음보는듯 숙한『컨써ー트』를이루엇다 더욱 조선을 떠나가는동포의음악을 듯고저하는청중은뎡각이되자마자 장내가 터지는듯한 박수소래도 순서의 취움을 나지ㅎ얏다 연악회원의 『묘색』작 『外봇테』와 『베토벤』작의 선련곡(旋轉曲)등 현악합주가먼저장내의 공긔를

가벼웁게 한후 홍재유(洪載裕)군의「만돌린」독수『마즈르카』무도곡을뜨더 한거름식 음악의 뎐당으로잇그러지자 김[illegible]씨의 『케비노래』의보옴독창과 홍성유(洪性裕)군의 「미유엣두곡」의 랍박바올린」독주가잇섯고 이어서금춘리화독졸업하고 일본으로 떠나가는 김원복(金元福)양의 광상선뎐됴(狂想旋轉調)란『피아노쏘노』는 파연정쾌하게 뜻더일반청중은 그의조선명을 떠나가는소리를 더듯고자하는 갈채가 빗발치듯어러나 재령을 바뎟다 백명곤(白命坤)씨의『새소ー폰』독주『매기의노래』는『바올린』파『피아노』를한주하야 음악대회의 한이채를 일우엇섯다 홍란파(洪蘭坡)의 사반악주의 선뎐됴(司伴樂中의旋轉調)라는『바요린솔로』가 물을뜨든시 이려나는 재청을바더가며 그치매이것이 데일부의 마츠막이엇스며 긔보한바와가터 각상뎜으로부터 긔증한 긔념품을 케비뽑아 이것을 주최측 홍란파씨도부터 발표한후 십오분휴식에 드러갓더라(오후구시긔)

纛島面에 避水臺
경비삼천삼백륙십팔원 울드려방금력사하는중

시외고양군독도(市外高陽郡纛島)는 년래로수재(水災)가만하 인민의손해가 적지안튼바 근년에는더욱심하야 거의 폐동이될 디경임으로 금번에 경긔도령에서는 수재구제회에서바든 구제금 삼십여만원중 삼천삼백륙십팔원을지출하야 동독도(東纛島)에다가 면적(面積)삼백오십평이요 넓히가 이십오척이나되는큰피수대(避水臺)를축조하기로되여 십일일부터 착수하엿다하며 그공사에 사용되는인부는 수재로 피해한 구역에 현주하는인부반으로하되 현재 각동리의로동자를 조사한바 전부가칠백십오인임으로이인부를매일이백명식 나누어가지고 나홀에한번식출역시키어 삭은 하립방평(一立方坪)을 파놋는것에 대하야이원식주기로 한다하며 데일일에출역한 인부가 구십륙명이오임금지불한 금액이 칠십륙원륙전 이라는바 빈민들은 로동할일도업고 생활에 곤난한때임으로대단히깃버한다더라(고양)

四青年放免
박변호사구타사건

오래동안 신의주사회의 큰문데[illegible]가되여잇든 변호사박유뎡(朴有禎)을구타한사건은 지난사일에 피고네명이 각각이년간 집행류예를 바닷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구일에이르러야 피고곽룡서외삼인(郭龍瑞外三人)은방면되엿다더라(신의주)

◇음력세찬의한가지◇

漁船遭難과 三陟人士의同情
일반의칭송이자자

함남퇴조면 송대리 문용수(咸南退潮面松岱里文龍洙)의 배는 륙십이월륙일에 퇴조만(退潮灣)을 떠나멀리일본해로명태어(明太魚)잡으러 나갓다가 폭풍을맛나 창창하고도 무서운파도치는대해에서 살곳을 찾지못하다가 겨우 동십이일인륙일만에 강원도삼척군원덕면(江原道三陟郡遠德面)에 도착되매동면면장조두원(趙斗元)씨와구장송긔서(宋基瑞)씨와 어업조합리사김경안(漁業組合理事金景安)씨와당디유지 최명집(崔明集)씨는친히나와서전긔문씨의배를구제할뿐만아니라 려비 륙십여원까지주어서 고향인퇴조까지 보내엿다는데 그배는시나간팔일에 무사히 도라왓다하며 퇴조이사들은 전긔제씨의 또거운동정을 칭송한다더라(퇴조)

金氏事件公判
징역일년구형

두보한바와가려 상해(傷害)라는죄명을 쓰고오래동안공주형무소미결감에서 고생하든 김용시(金鷹時)씨공판은지난구일오전 열시공주디방법원 데일호법뎡에서영뎐(永田)예심판사와류원(柳原)검사의 립회로 개뎡되엿는데 영뎐예심판사로 부터여러가지심문한후류원검사의징역일년의 구형이잇슨후 뎐중(田中)변호사의 유리한변론이 잇슨다음폐뎡하엿는데판사의언도는래십삼일이라더라(공주)

平壤麵組紀念
십삼일오전에

평양면옥로동조합(平壤麵屋勞働組合)에서는 금월십삼일오전십일시에 부내설암리 련도교당에서 뎡긔총회를 연다는데겸하야일주년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한다더라(평양)

義州郡에 馬賊團이 侵入
사람을찔러한명은사망

지난팔일 오전두시경에 의주군광성면 성외동리봉수(義州郡光城面城外洞李鳳首)의집에 중국마적세명이 침입하는것을 행낭밧에서자든김지선(金志善)이 가왓고 마조나가며 고함을치는바람에 전긔마적단은 김지선의복부를흉긔로 찌르고 다라나버렷다는데김지선은곳신의주로송뎡청산병원(老松町青山病院)에입원하야 유급치료를하엿스나 십일미명에 드디여 사망하엿스며전긔마적단은 동야에 동면화평[illegible]

雜貨商에 窃盜
삼척군삼척면

강원도삼척군삼척면뎡상(江原道三陟郡三陟面汀上)길(鄭德吉)의 잡화상[illegible] 월사일오후 두시경에 [illegible] 원 가량든 손금고 [illegible] 서주인 정덕길은즉시 그동리경관주재소에다가고발하엿더니주재소 경관일동은 그범인을데포키위하야 열심으로 됴사하는중이라더라(삼척)

窃盜하야 青樓遊興
또다시백미를 훔치다가잡혀

지난칠일오전한사에 마산부내[illegible](富町) 리래룡(李[illegible])[illegible] 칩입하야 백미[illegible] 계속취조중이라

漁船十四隻遭難
日本相州近海의暴風
승조원백륙십여명행방불명

일본상주소뎐원[illegible](小田原[illegible]村)어업조합의 소유어선[illegible]丸)외십삼척은 승조원[illegible]이명을실고 지난십일[illegible]리도부터 이백리가량[illegible]는바다에서 고기를잡[illegible]에쫏기여 모도행방불[illegible]다는데 풍랑이심하야[illegible]

巧妙한詐欺輩

[illegible](十株?)다섯장과 가격 구천이백이 드리겟다 하엿슴 뎐화를바든 마생 광책(松井良策)을 [illegible] 두고 또다시뎐화 [illegible] 일본 교흥지은행 [illegible] (濁池銀行支店爲替) [illegible](橋本某) 의 위체 [illegible] 지를 무른후에「보[illegible] 하엿다더라

十八歲의妙齡女 窃盜犯行五十次
전문학생을애부로두고 교묘한수단으로도적질

[illegible] 라고농청스럽게말하야듯는자의 동정을 어더 가지고그집의 구원을 밧기에 이른번 몃칠동안은 과연어의 혀와가티 그집식구의 눈에 잘늘도록 보히다음에 그들이 주의를 계을리 하게되여서는몰래 그집의 중요한금품(金品)을 다치는대로 훔쳐가지고 도망하기를 과거오륙년동안에그수를헤아릴수업시 계속하야그피해액도거대한금액에달한모양으로드되어십일오후에시내 필운동(弼雲洞)바면의서종로서원의손에 데포되엿는바 지금까지판명된것은 총히 오십여건근삼천원의 거액에달하엿다 하며 이계집은 더욱이 일본밥에농난하야 일본인의피해자도 적지아니한층도적질한 돈으로는 자긔의호화로운 생활과 밋그정부인 모전문학교 학생기타로 리집보이들의호사를 시켜주는데에 소비하엿다더라

生活難이나노혼 悲劇中의悲劇
팔십세의늙은몸으로 나무갓다가데여죽어
그의一生은눈물뿐이엿다

겨울! 그것은 긔한에 사로잡히여 아우성치는무리에게 더한층괴한과 고통을 도아줄뿐이다 흰눈이사야(四野)에가득하야 백화만발의 세계를 이루어노흘지라도 생활이극도로 빈핍한무리에게는 그것이도리혀 원수가려괴롭고 악마가려 두려울것이다 그러나요대주각(瑤臺珠閣)에서 기름진배를 쓰다듬으며 술과계집에게

싸히여 세상을 노래하든무리는 눈구경이라는 미명아래자동차와 인력거바람으로 명승을차저다니는 지난달 십오일수양산(首陽山)을넘어드는찬바람이살을어일듯이 치운날이엿다조반석죽도 못하고 하로밥에처위를막기위하야석잔한몸을잇글고 눈싸힌 험한산비탈에서 나무를하다가불에데여비참하게세상을 떠나버린팔십로인이잇섯다

그에게 는과연엇떠한원한과 비애가쌋히여잇는가 그는현재해주북욱뎡(海州北旭町)삼십사번디에사는남득성(南得成)이라는 로인으로서 일족이남과가터장사도하고술하에잇는아들형뎨들자긔의수족가터미더오며 그날그날을 우승과집봄가운데에 지내엿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의꿈에서 떠지나지못하얏다 만치못한 자본으로장사하든 것도 모다파멸을 당하고오족술하의두자식을맛고여생을보내려하엿스나태산가티미더오든

자식도 그에게는도리혀 열원히 살어지지못할 눈물이되고말엇다 금지옥엽(金枝玉葉)으로길러오든 자근아들래순(泰淳)이가 지금으로부터팔년전에 사망하는 부모의술하를떠나 오족한아 남어잇든큰아들래환(泰煥)이조차종적이묘연하게 살아지고 말엇다 청련에벽력이 나린듯이 갑작어둡히캄캄하여진

두늙은 이는이리저리표류하며자식간곳을 애써자즐려하엿스나 엇지자최업시 떠난자식의 간곳을 알수잇섯스랴 안타가운마음을 진정치 못하야 엇던 쎼는『무당』『판수』에게까지 자식 간곳을 물어보앗스나 거짓으로꿈여노흔 허위의 마귀가 엇지바른대답을 속시원히하여주엇스랴 이리하야 두늙은이는

아츰에 소사오는해와 저녁에살아지는석조(夕照)를바라보며 눈물과한숨으로 자식의도라오기만 고대하엿다 그러나기다리는 자식은도라오지도 안코 몃업시 흘으는세월은 발서팔개성상이되여 두늙은이의 머리에도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초생달가리 굽게되여 낫이갈사록 생활은더욱 곤궁하여갈뿐이엿다 이리하여 그는

먹듯이 하여가며한께의치위를막기위하야 굽은허리에지게를걸머지고 십리나되는안산으로 나무를것다가 늙은몸에처위를 이기지못하야 나무가지를모아노코 불을피우고 몸을녹이며뎡배를 피우든중 별안간바람이 맹렬히불어 피여노핫든 불길이로인의몸에 멍히엿다 뜻하지안헛든 변을당한로인은 그자리에쓰러져

정신을 일코사람살리라는외마대소리 메마되를 질럿다이 급한소리를들은 그부근에서 나무하든한사람이 달려들어로인의의복을벗기엿스나 벌서일은다 지난다음이다 로인의 피스긔업는몸은 무서운불길에 말못할상처를밧고 가든나무군에게 업히여 겨우집으로 도라왓스나죽한그몸이 어려운그의생을로 엇지 약한 번번히씨보앗스랴

그대로 처운방에누어신음하다가 드되여 지난일일로한만코 눈물만흔 일생을마치고말앗는데 부자집도야지 우리만도못한 다쓰러져가는 로인의집을차저가나 방안에 홈로안저비참한 신세를한탄하든 박씨(朴氏)는두눈의 눈물을 씨스며금세압길을생각하면 것잡을수업는 눈물만흔일생이외다 팔년전에 떠난자식들이나 도라

왓스면 조흘만 그나마 소식조차 업습니다 자라리내가 먼저 죽엇드면 이런꼴은안당할 것을…… 집이라고 한간잇는것은 이번에장례(葬禮) 지내노라고 집문서를잡히고 돈이십원을 어더다가 장비(葬費)로 썻스니지금은그나마 집한간도 업고……」하며말끗도못맷고 십리나 드려간 두눈에서 눈물만뚝뚝 떠러질뿐이엿다 누가이참경을 보고 한숨지으지안흘며 동정의눈물을흘리지 아니하랴! (해주일긔자)

樵夫銃傷한 日本人의獵客
피해자의생명이위독한중 책임을면코자흉계를내여

지난 일월이십팔일 오후네시경에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감포면 오류동(甘浦面五柳洞)에잇는 해망산(海望山)솔숩속에서 일인 필뎐총오랑(疋田總五郞)이란자가 나무하고잇는 김판종(金判宗)(一九)이란 사람을 사냥총으로 두번을련하여쏘아 전긔김판종은 현장에서업허진것을 부근에잇는 초부들이보고 동리사람오백여명을 모아가지고 급히달려가서 가해자필뎐을붓잡으며한편으로는넘어진

김판종을 구원하며 또한편으로는주재소로급보하엿든바주재소에서 일인순사가 현장에와서 피해자는보지도안코 가해자만 보호함으로 모혓든군중은흥분하야 일장의수라장을 일우엇섯는데 주재소에서는 소방대를풀어 군중을해산식이고 가해자는 다려가든중 전긔일인경관은 사람쏘은총을 일본인의상뎜에맛기고 감으로 그동리구장림종선(林鍾善)씨가그잘못임을

힐책한즉 그자는경관이하는일에 네가무슨 잔소리이냐고전긔림씨를 함부루 구타함으로혀여진군중은다시모혀데이차의 풍파를 일으키엇다하며전긔 피해자는 대구(大邱)자혜의원의사가 출장진찰한 결과 전신에서 산탄칠십여개를 빼엿는데갈빗대(肋骨)에박인것은아직못써냇다하며 생명도 과연

엇지될지 알수업다는데 전긔주재소에서는 가해자 일인을그이튼날에야 아모소리 업시내여노핫다하며 가해자는 최우현(崔羽賢)과배경옥(裵慶玉)등 몃명을식히여 피해자의부친 김영조(金永祚)란로인을위협하고 치료비로 일백오십원을 주고나종에는 죽드라도 상관이업다는 계약서 비스름한것을 바더갓다하야일반의비난이자자하다더라(포항)

紛糾를重疊하는 北城面所移轉問題와
쌍방의태도는다음과갓다

덕원(德源)군당국의 면소이전설로 북성면(北城面)에 면민대 면민, 면민대행뎡당국과의 문데가 점점복잡하여가는 이때에덕원군수뎡복(德源郡守[illegible])씨는 왕방한 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더라

내가 북성면에 출장하엿슬때 면소이전에 대한의향을 말한후 이때까지 려행중이엇섯는데 문데는의외에확대되야 면민대회를 개최하는등 신문지상에 오전이되는등 이런일이 만엇섯는바이것은매우유감으로역이는바이외다 이전은 아직확뎡되지안흔 나개인의 의견이니 이런문데를 경솔하게 처리할수업는것이며교통상편리라든가 행정상편리를 위하야 좀더충분히 연구됴사한후 처분하겟다

하며지난 팔일에 군텽에가서군수에게 질문한대표 뎡길봉씨는긔자에게다음과가티말하더라

절대다수의 인긔를 무시하고 이전계획을하는 군당국은 어데까지든지 반대할 결심이외다 커히가 군당국에 질문하엿슬때 군수의말이 이문데는 아즉 나의 복안이엿스며 구데뎍결뎡이업기때문에 문네를 야긔하는것은 조계(早計)라하며 몃몃 유지와가티 의사를소통하여도 그만이겟는것을 면민대회까지 개최하는것은 불온당한수단이라하나 문데가결뎡하기전에 미연에 방지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몃몃유지의 의견만교환하면 그만이라하나 엇지면민을 통괄하야 결의가되지안은것을 민의를 대표하얏다고 못할것이니 우리가무엇이조계이며 경솔하다고 하겟슴니까 그리고우리는 일후군당국의방침을 주시하야 최후까지반대하겟노라(덕원)

▷第一回投票規定◁

每月一題 讀者懸賞投票募集

◇問題 어느商店看板이第一조흔가 (京城市內朝鮮人商店中에서)

◇賞品
一等(十八金腕時計一箇)一人
二等(廣木一疋)一人
三等(木 二疋)一人

◇投票 二月一日부터同十五日까지京城水標町朝鮮日報社懸賞係로보내시오 (市內及附近讀者에限하되本紙掲載의投票用紙에限함)

◇方法 投票點數最多點을得한商店의投票中에서 一等一人 二等一人 三等一人을抽籤함

◇抽籤 二月十八日에警官及中央繁榮會幹部立會下에

◇發表 二月二十日附本紙紙上에當選者發表

◇注意 (一)指定한投票用紙以外의投票는無効 (二)一人의名義로十枚以上投票한時는全部無効 (三)投票皮封에『懸賞係』라고特書치안은것은無効

▷朝鮮日報社◁

鐵槌로打殺!
벼한섬지고간다고 殘虐한日人고직이
피해자원몸은피투성이 삼동장에생긴살인사건

황주군흑교시(黃州郡黑橋市)모리농장(森農場)에서지난구일오전두시경에 모리농장 창고를간수하든일본인북궁(北宮)이라는자와동변금석리(金石里)에 사는김찬익(金讚益)과모리농장뒤산에서 일대격투가 여졸되엿다가 드되여 김찬익은일본북궁이에게 몽치로 몹시맛고동일네시경에 현장에서 참혹히 죽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데 동농장창고에는 벼수백석이 적재하엿슴으로 이를경라하고잇든 전긔북궁이라는 일본인이 오전두시경에 창고를순찰하든중 어떤수상한자가 창고에드러와 벼를한섬시고 나가기에 이를따라 농장문밧까지나와 소리를시른즉 전긔피해자 김찬익은 지고가든벼섬을 길가에집어던지고 산속으로드러가 은신하엿다가 우통을벗고나와 전긔와 가터들이 한바탕격투를 하엿스나 어찌몽치를들은 북궁을당하리오그자리에혼도하야너머진것을삽아울고그엽경관주재소로와서전후사실을말하고 동주재소에 유치하얏더니 드디어 동일네시경에무참히절명되고말앗다더라

注目할警察態度
살인범을보고만잇서

피해자김한익은모리농장의벼를 [illegible]히매를맛고 참혹히 죽엇다함은 별항 보도한바어니와 이급보를 접한 황주경찰서에서는 반던경부와동군공의리동희(李東熙)씨가현장에 달려가 신데중몹시중상된 두부약면을해부하여본결과뇌막이 몹시 상하엿다는바 피해자의 의복은 물론이오 전신이 피투성이가되어 현장의광경은 참아눈으로 볼수가업섯스며가해자의말은 격투를 하엿다하나 일처에도상한군데가 업는것을볼진대 별반서로 격투치안흔것은 가히알수잇스며 가해자북궁은 현장에잇스나 데포치는안햇다더라(황주)

義州에窃盜

지난 사일 오후구시경에 의주군송장면 사산동(義州郡松長面社山洞)오십구번디에사는최석지(崔錫[illegible])의 집에 절도한명이 들어와서옷을 훔쳐다가 그만 주인에게발각되며 뜻을얻지못하고 곳다라낫는데 이소식을 들은소관송장 경찰관주재소에서는그이웃에잇는 혐의자한사람을 데포하야취됴중이라고(의주)

蔚山市場通 火災로大騷動
모자뎜이타고진화

지난팔일 오후팔시경에 울산시장통박장표(蔚山市場通朴章杓)모자뎜에서 주인박장표가 본집에가고 업는여가에 방안에서불이나서 불건슬거의 소실하고집들이 천하가서로 며여잇는터임으로 일시는큰소동을 이르켯스나소방조가 급히나와 첨하까지나당진물은 다잡엇스되 모자뎜주인 박씨는가족오륙인이 그로써근근 생활하여가든 형편임으로 그정경이 매우가엽게되엿다하며불난원인은군불땔때에중방결헤 쑤러진구멍으로 불길이 나와그리로불이당겨부튼것이라더라(울산)

◇新高山小火

함남안변군위익면 신대리권경찬(咸南安邊郡衛益面新垈里權敬贊)의집에서구일밤열시에불이낫섯는데 마츰우물과강에 물이말는때임으로 한가지도 남기지못하고 타바린바출화의원인은쥐구멍으로불이부튼것이라고(신고산)

軍資募集員公判
변론긔일은오는이십일

본보에 두보한 평남강서군쌍룡면운포리(平南江西郡雙龍面雲浦里)최상선(崔祥善)과 동군반석면상사리(同郡班石面上四里)리긔영(李基榮)의 두명은 일족이 조선독립운동에희생뎍 정신을가진 장맹선(張孟善)의부하가되여 대정구년십일월경에 평북녕원 운산(平北寧遠雲山)각디로 횡행하며 일변으로 군자금을모집하고 경관대와두차 교전까지하야 쌍방에서서로 사상을내인사실로 대정십삼년십월경에 평양검사국으로 인치되여 오래동안 예심을밧다가 지난구일오전 구시에 평양디방법원데일호법뎡에서 공판을하게되엿섯고 피고량인은 사실을전부부인하는데 변호는 오승은(吳崇殷)(송본)량씨로서변론긔일은오는이십일이라더라(평양)

飛機墜落
일본동경에서

십일오전아홉시오분경에일본동경부하남다마군일야뎡(東京府下南多摩郡日野町)이천칠백륙십칠번디뎐상군차(田上軍次)의집짐봉에 립천비행대(立川飛行隊) 을식(乙式)일호뎡찰긔가떠러저 그비행긔에 탓든사람은바른편팔을 부러트리고 현장에잇든 뎐상군차의아들은 머리에중상을당하엿다더라(동경뎐보)

執務中急死
원인은뇌일혈

지난팔일 오후네시경에 태인(泰仁)우편소장 삼산(森山)이란일인은사무실에서사무를보고잇든중돌연 뇌일혈(腦溢血)이 일어졸도(卒倒)하엿섯는데 드되여사망하엿다더라(태인)

金泉에도火災
잡화채가소실

지나간팔일밤 새로세시반경에 경상북도 금천군아천면 남산동(金泉郡牙川面南山洞) 권기만의집에 불이일어나서그집이 전소하엿스며 손해는약삼백원가량인데 일시에[illegible]을 일우엇다더라(금천)

襄陽에火災
손해액오백원

강원도양양군도천면대포항이팔구번디(江原道襄陽郡道川面大浦港二八九) 도변정시(渡邊正市)의 집에서는 지난삼일 오전일곱시삼십분경에 불이나서 집안집의하로부터 울려가는것을 이웃집사람이먼저 보고소리를 쳐서사람들이 모혀동진화하엿는데 그집아들 목(材木)사건으로 신흥사(神興寺)에갓섯고 도변진(渡邊進)은 집안을길려간사이에 [illegible]낭을가지고 작란을하다가 발화된것이라는데 요행히 눈이오고바람이 업섯슴으로 이웃집에 연소되지아니하고진화하얏스나 손해는 약오백원에 달하리라 하며 그의참상을 본동리제씨는 약간의물질로구조(救助)하얏다더라

회과람

▲충주군충주면사무소에서는근래에세금을독촉하는데이왕내인것까지 뎡허노코독촉을하다가▲령수증을내여보이면그만도라서고령수증보관하지 못한사람에게는 작년일긔분까지 내이라고한다고 비난이만타▲면에서는 그러한일을 하야 물질덕손해는 엄겟지마는한번내기에도 견댈수가 업서헤매는그들에게 두번식 내이라면그들은 다죽은송장이아닌데 엇지하자는생각인지